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 네 장씩 성경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으시면 1년이면 구약 1번 신약 2번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하루 20분 말씀을 읽으시고 30분 이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많이 알아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뜻 듣기에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믿어야 알게 된다"고 말씀 하십니다. 많이 아는 지식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단 한번이라도 경험할 수 없는 무한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가진 그릇 속에 태평양 물을 담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그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태평양 물을 담을 방법은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고 믿으려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결단할 때만이 비로소 알게 되는 역사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기초는 바로 성경66권을 믿는 것이 되야 합니다.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 66권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임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 됩니

다. 우리가 만약에 창세기 1:1절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성경말씀이 주어진다 하여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창 1:1절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태초에" 라는 말은 이 우주의 시간의 시초를 말합니다. 이 우주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 태초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바로 시간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다는 뜻은 바로 그 분께서 공간도 초월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시간에 얽매인다는 말은 공간에 얽매인다는 말이고 시간과 공간을 따로 분리해서 존재하는 객체는 실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공간도 초월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태초라는 시간을 정하시고 우주라는 공간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라는 이 짧은 한마디 가운데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고, 어느 때, 어느 곳을 불문하고 계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심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라는 이름 가운데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하여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과 악의 개념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탄에게 속은 결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 분만이 선악의 기준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탄은 하와에게 인간도 선악의 기준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인 것입니다.(창 3:4-5)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였고, 악한 사탄 마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

라면 그 분 자신이 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요, 그 분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지를"하는 말씀에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아담과 이브를 위하여 이 천지를 먼저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천지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이 아니라 전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천지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며, 스스로 자존하시며, 무소 부재하시며,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셔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 비로소 성경이 깨달아지고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주시는 기쁨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